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야의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금강경 사경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이 우주

궁극적 실재 존재하고,
 허망한 것
 존재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
 바른 생각으로
 진리에 닿을 수 있다네.

But those who know the Real is, and know the unreal is not, they shall indeed reach the Truth, safe on the path of right though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부처님 말씀:

일곱 종류의 불자들

불자는 ‘삼악도’서 해매지 말고 ‘거룩한 성자 삶’ 닦도록 노력 위선 교만 나태 등 버리고 낮은데서 높은 단계로 향상해야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水喻人)’를 들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나는 지금 일곱 종류의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할 테니 잘 듣고 수행하는데 게으르지 말라.

첫째는 물밑에 빠져 있으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착하지 못한 법이 그 몸에 가득차서 몇 겹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물밑에 빠져 있으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둘째는 물에서 나왔다가 도로 빠지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뿌리가 점점 얇아져서 비록 착한 법에 있지만 그것이 든든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다가도 뒤에 다시 악행을 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난다. 이런 사람을 물에서 나왔다가 도로 빠지는 사람이라고 한다.

셋째는 물 위로 나와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뿌리는 있으나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스스로 안주하나니 그는 나중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난다. 이런 사람을 물위로 나와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넷째는 물에서 머리를 내밀고 머무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과 정진으로 세 가지 결박을 끊고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구경에 이르러 위없는 도를 성취한다. 이런 사람을 물에서 머리를 내밀고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물을 건너려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과 정진으로 항상 부끄러움을 가져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얇아져 이 세상에 태어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사람을 물을 건너려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섯째는 저쪽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과 정진의 뿌리가 깊어서 욕심세계의 다섯 가지 결박을 끊고 아나함이 되어 거기서 열반에 들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저쪽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일곱째는 이미 저쪽 언덕에 건너간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뿌리와 정진의 뿌리가 깊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번뇌가 다하여 현재에서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미 나고 죽음이 다했으며 할 일을 다 마쳐, 다시는 후생의 몸을 받지 않을 줄 알며, 남음이 없는 열반(無餘依涅槃)의 세계에서 반열반한다. 이런 사람을 이미 저쪽 언덕에 건너간 사람이라고 한다.”

- 중일아함33 권 등법품(等法品) 제3 경

경전의 문면을 자세히 읽다보면 앞에 나오는 세 부류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해매는 사람들이다. 뒤에 나오는 네 부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네 단계(預流 一來 不還 無學)의 성자들이다. 불자들로서는 당연히 삼악도에서 해매지 말고 거룩한 성자들의 삶을 닦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향상하지 못하고 있다. 심한 경우는 날이 갈수록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멀리서 예를 구할 것도 없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어째서 이처럼 고약한 일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 서너 가지가 원인이 아닐까 싶다. 첫째는 위선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교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는 나태하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우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는 불교를 망치려고 작정한 외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을 교화하여 사람을 만들자면 자비하고 너그러운 부처님도 속깨나 끓이셔야 할 것 같다.

7 월의 경전 공부:

지장경

“악도 중생 제도위해 성불 포기”

부처님이 마야부인 위해 설한 경전 “생전 선업 닦아야 사후 고통 없애”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했다는 경이 <지장경(地藏經)> 이다. 본래 이름 <지장보살본원경> 을 줄여서 <지장경> 이라 한다. 제목에 드러나듯이 이 경은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해 설해 놓은 경이다. 지장보살은 대승불교의 4 대 보살 중 악도중생의 구원을 본원으로 하고 있는 보살로 흔히 대비천제(大悲闡提)로 알려진 보살이다. 악도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불을 포기했다는 말이다.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 칭송하는 것처럼 육도중생을 구원하는 대비보살로 도리천에서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고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오직 중생구제만을 위한다고 한다. 특히 지장보살은 사람이 죽은 후 악도에 가는 것을 막아주는 위신력이 있어 영가천도에 주로 지장기도를 하는 신앙풍습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지장보살에 관한 경전으로는 <지장보살본원경> 외에 <지장십륜경> 과 <점찰선악업보경> 이 있다. 지장삼부경이라 할 수 있는 경이다.

<지장경> 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한역본은 모두 2 권 13 품으로 되어 있다. 제 4 <염부중생업감품> 에 보면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백천만억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어 모든 고통 받는 업보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로 베푸는 위신력이 아니면 저는 이와 같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아일다(미륵)가 성불할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여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쁜 과보를 받아 악도에 가고 좋은 과보를 받아 선도에 가면서 육도의 윤회를 쉬지 못하느니라. 티끌수와 같은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에 파묻혀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갇혀 있으면서 물속인줄만 알고 있는 것과 같나니, 내가 이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대가 아득한 옛적에 세운 원을 여러 겁을 지나오면서 거듭 서원하여 이들 죄업중생을 제도하려 하는구나. 이제 무엇을 염려하리오.”

<지장경> 에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설해져 있다. 제 5 <지옥명호품> 에는 45 개의 지옥 이름이 나온다. 제 3 <관중생업연품> 에는 마야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중생이 짓는 업의 과보를 물었을 때 지장보살은 성모(聖母) 마야부인에게 무간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후의 고통을 대비해 생전에 선업을 많이 닦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는 이야기들이다.

또한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하여 구세주 역할을 하는 보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명부에서의 지장의 역할은 특별하여 지옥 중생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원력이 있다. 이리하여 지장신앙은 천도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난 지장신앙이 신라 때 당나라에 들어가 현장문화에 있었던 신방(神昉) 등 구법승들에 의해 전래되고 또 신라 왕자 출신의 교각(喬覺) 김지장(金地藏), 진표율사 등에 의해 민간에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조선조 세종 때 세종대왕의 막내아들 영웅대군(永膺大君)이 태종의 비였던 원경왕후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장경> 을 간행한 것이 있는데 왕실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전한다. - 불교 신문에서 발췌 -

지혜로운 자의 행동양식: 너와 나 ‘상의성’이 연기의 제 1 법칙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공경” 자신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

지혜로운 자, 즉 깨달은 자의 깨달음의 내용은 곧 연기(緣起)의 진리이고, 연기의 진리의 제 1 법칙은 상의성(相依性)의 법칙이라 했다. 이를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나의 존재근거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모든 네가 나의 존재근거라는 뜻이다.

사용자의 존재근거는 노동자이고 남편의 존재근거는 아내이며, 독자의 존재근거는 책이고 교수의 존재근거는 학생이며, 아버지의 존재근거는 아들이고 스님의 존재근거는 신도이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한 존재의 존재근거는 단수가 아니라 무한한 복수이다. 사실 공기까지 포함해서 내 앞에 놓인 나 이외의 모든 너는 다 나의 존재근거다.

지혜로운 자, 즉 연기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내 앞에 놓인 이 모든 너에게 무한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으니 어찌 너를 향해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앞의 모든 네가 다 나의 존재근거라는 연기의 진리를 되새겨 보면, 내 앞에 놓인 모든 너를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솟구친다.

■ 그렇다면 내 앞에 놓인 모든 너에게 감사하는 자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내 앞에 놓인 모든 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내 앞에 놓인 모든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 존중하는 행동, 아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자의 행동은 자신 앞에 놓인 너를 향해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의 극단적인 행태가 바로 존재의 파괴, 즉 살생이다. 일반적인 생명의 요소는 호흡, 지각, 운동, 생식(生殖)이다. 초기불교는 이러한 요소를 파괴하는 것을 살생이라 한다.

대승불교는 이뿐만 아니라 기능, 작용, 역할을 갖는 일체의 존재를 모두 생명으로 보고자 한다. 불교는 숨 쉬고 인식하고 움직이고 번식하는 모든 존재들, 나아가 일체존재 전부를 중생(衆生)으로 보고, 그 존재를 파괴하는 행동을 살생으로 간주한다.

웃이라는 존재가 추위와 더위를 막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기능과 역할과 작용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살생이다. 돌 한 덩어리 흙 한 줌도 마찬가지다.

연기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존재의 파괴를 저지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일체존재의 생명을 온전케 하고자 한다. 즉 불교는 호흡, 지각, 운동, 생식하는 일체 생명을 도우며, 나아가 기능과 작용과 역할을 갖는 일체존재의 그것을 심분 발휘하도록 돕고자 한다. 불교는 이러한 일체의 행동을 방생(放生)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한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는 내 앞에 놓인 모든 너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존재를 온전케 하고자 한다. 어리석은 자는 나의 존재근거가 너임을 모르고, 네가 사라질 때 나도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마는 공동운명체임을 모른다. 따라서 너와 나를 분립적, 대립적, 쟁투적 존재로 인식하고, 너를 희생시켜 나를 위하고자 한다. 그러나 너의 파괴는 내 존재근거의 파괴임으로 결국 나의 파괴로 이어진다.

연기법을 깨달은 자,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제 1 행동 원리는 방생, 즉 감사와 공존이다. 이는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행복하게 하는 영원한 진리인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행동 원리 2: 자업자득... ‘인과법칙’의 확연함을 읽는다

성격에 따라 시기만 다를 뿐 지은 업엔 반드시 결과따라

연기법을 깨달은 자,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제 2 행동 원리를 논하기 전에 붓다 당시의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동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행위, 행동을 뜻하는 한자어는 업(業)이다. 업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karma)에서 온 말인데, ‘하다, 완수하다, 만들다’ 등의 뜻을 갖는 동사[k]에서 파생되어 ‘행위, 활동, 일’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업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중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하게 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살아 있는 일체 존재의 행위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독특한 교설[業說]은 베다(Veda)시대부터 시작해서 브라흐마나(Brhmaa)와 우파니샤드(Upaniad) 및 요가(Yoga)사상 등 힌두 전통 전반은 물론 자이나교(Jainism)와 불교의 교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론이다. 업설은 인도 사람들의 사상과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업설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 위에서 성립한다. 또한 악한 행위에는 악한 업보가 따르고 선한 행위에는 선한 과보가 따른다는 ‘윤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인과성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를 가짐으로써 결국 업설은 윤리적인 인과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의 결과는 예외 없이 업의 주체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자업자득의 법칙’이라고 한다.

업의 인과법칙이란 업은 예외 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뜻이다. 얼핏 보기에 모든 행위는 실현되는 그 순간 그 자체로서 끝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하지 않는다. 업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긴다. 향을 태우면 향은 타서 사라지지만 향기가 옷에 베어들어 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업이 남긴 이 흔적을 업력(業力)이라고 하는데, 이 업력은 업의 주체 속에 잠재적인 에너지로 남아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업력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動力)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업의 인과법칙은 식물의 씨앗과 열매로 비유될 수 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전적으로 씨앗에 의해서 결정된다. 콩이라는 열매는 콩이라는 씨앗의 결과이고 팥이라는 열매는 팥이라는 씨앗의

결과이다. 같은 밭의 같은 조건에 심고 키우더라도 하나는 콩이 되고 다른 하나는 팥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콩이나 팥이라는 씨앗 때문이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열리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열리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업인(業因)에 따라서 정해진 업과(業果)가 생겨난다.

업의 인과법칙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은 업은 여하튼 반드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은 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생에 나타나기도[順現業]하고 내생에 나타나기도[順生業] 하며 내 후생에 나타나기도[順後業]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 “금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라. 아직 그 열매가 익지 않았을 뿐이다. 금생에 지은 선업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말라. 아직 그 열매가 여물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경구에서 업력과 과보의 인과법칙의 확연함을 읽을 수 있다. 업인은 반드시 업과를 초래하고야 만다는 것이 업의 인과법칙이다.

선시 감상: 세상과 함께 하면서 초연하다(塵異)

“마음 펼치면 온갖 만법 눈에 들어와”

과거 가르침에 만 안주 말고 시대에 맞는 새옷도 입어야

萬法泯時全體現 三乘分別強安名 丈夫自有衝天志 莫向如來行處行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전체가 드러나니 삼승(三乘)이란 분별은 억지로 이름을 만든 것일세. 대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를 뜻이 있어서 여래가 간 곳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 <동안상찰선사 십현담(十玄談)>

동안상찰(同安常察, ?~961)선사의 <십현담(十玄談)>은 대단히 빼어난 선시(禪詩) 중에 하나다. 열 가지 제목으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과 역대조사스님들의 어록을 대변하고 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과 함께하면서도 세상에 초연하다(塵異)’라는 것은 동안스님 자신의 경계는 세상과 온갖 삼라만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와 같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펼쳐놓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펼쳐놓고 살다보면 자연히 사람들의 잡다한 수준과 근기들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해서 세세하게 타이르고 조목조목 일러주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성문승(聲聞乘)의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일체가 연기(緣起)의 도리로서 형성되어 있고 연기의 원리대로 굴러가고 있음을 깨달아 살아야 한다는 연각승(緣覺乘)의 가르침도 설해야 한다.

연기란 아뢰야(阿賴耶)연기니, 진여(眞如)연기니, 법계(法界)연기니 하여 그 이치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리고 설사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구제하고 가난과 병고와 온갖 불행을 내가 다 건진다 하더라도 역시 세상에서 아득히 빼어난 선사로서는 그와 같은 보살행은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선사들의 선기(禪機)를 높이 사는 뜻이 무엇인가. 마음을 펼치면 온갖 만법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 한 마음을

거뒤들이면 일체가 사라진다. 일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진정 대기대용(大機大用)과 전체작용(全體作用)이 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누가 있어 알라만은 진정한 선사의 높은 기개는 일방통행식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펼쳐 놓은 삼승의 분별들은 알고보면 중생들의 잡다한 근기에 수순하는 억지소리들(強安名)이다.

대장부에게는 하늘을 찌를 뜻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대장부란 누구인가. 좀 멀리까지 올라가면 원시(原始)불교와 부파(部派)불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불교, 즉 대승(大乘)불교운동을 일으킨 당시로서는 마명(馬鳴)보살과 용수(龍樹)보살 같은 분들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대승불교도 수세기가 흐른 뒤에는 더 이상의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일체의 대소승 경전들을 모두 폐기처분(不立文字)하고 또 다시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킨 달마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나 그 훌륭한 달마의 가르침도 시대가 변천하면서 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이러한 뜻으로 기존의 불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세상을 선도하는 이들을 대장부라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앞서간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훌륭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처럼 변화된 사회에서 이 시대의 불교 옷으로 갈아입혀야 할 새로운 대장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과거에 필요하고 그 시대에 적합한 불교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새로운 불교운동이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해왔다. 그렇다. 동안상찰스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는 과거의 가르침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근본 뿌리는 언제나 원시불교에 두더라도 과감하게 옛 옷을 벗어던지고 이 시대에 적합하고 알맞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세상과 함께하면서 세상에 초연한 길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합시다.

마음과 말이 부드러워야 한다.

어떤 것을 입은 탐욕스럽고 마음은 성내는 것이라고 하는가? 입이 하는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은 독을 품는 것을 말한다. 마치 독이 있는 나무가 그 꽃 빛깔은 선명하지만 열매는 매우 쓴 것처럼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에 독을 품은 이도 또한 그와 같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입이 하는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은 독해(毒害)를 품고 있나니
사람을 보면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따르므로 친할 만하고

입이 하는 말은 유순하여도
그 마음속에는 독을 품고 있어
저 독한 나무가 꽃 빛깔 선명하지만
그 열매는 쓰고 독한 것과 같다.

(수행도지경) 제 2 권 한글장 (인터넷판) 77 쪽

법회소식 NEWS

- 일년중 가장 덥다는 7월이 찾아 왔습니다. 올해에는 예년보다 많이 덥다 하니 신도님들 가족 모두는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2월 둘째주에는 야외 법회가 있습니다.
야외법회 장소와 시간은 7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때 신도님들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더불어 법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4째주 일요일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금강경 사경 법회가 있습니다. 4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에 오시기 전에 금강경 78페이지 “제 31 장 지견불생분”까지 사경을 마쳐주셔서 4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때에는 마지막 “제 32 장 응화비진분”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주십시오. 또한 사경을 하시는 신도님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7월 한 달간 금강경 사경 기도를 해 주십시오.
- 7월 다섯째 주 법회는 쉽니다. 법회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그동안 부다나라 (불국사) 식구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수행을 했던 정진옥 교수님 가족 과 고경환 교수님 가족들이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두 분 가족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국사 후원회는 매주 넷째주 수요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찬불가 교실을 열고, 매달 넷째주 일요일에는 입적하시기 전에 강 석주 큰스님께서 창건하신 안양원 양로원 봉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격외선원에서 참선 철야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국사 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불자님들 중에서 봉사 활동이나 참선에 관심이 있는 불자님들은 한국 불국사 후원회 나 미국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 6월 신규 인등기도 동참자: 221 번 망 도반 군위유인 보리심 나순자 영가, 425 번 임진생 이상달, 426 번 병신생 이상문, 427 번 정미생 이강희, 428 번 정미생 이미선, 429 번 정미생 김민정.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